제4강 自然=퓌지스를 탐구하다 Ⅱ

(1교시)

밀레토스 지역은 한 때 철학의 요람이었으나 494년에 페르시아에 정복당한 후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 철학의 중심은 아낙시메네스와 같은 시대 사람인 퓌타고라스가 창건한 퓌타고라스 학파에로 옮겨가게 된다.
퓌타고라스는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으며 530년 경 참주였던 폴뤼크라테스와 대립했다가 섬을 떠나게 되었다 한다. 그 후 남부 이탈리아로 이주해 활동했다. 퓌타고라스는 한편으로 밀레토스의 과학적 분위기를 흡수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델로스 섬을 성지(聖地)로 해서 발흥하고 있었던 오르페우스교와도 교류했다. 그래서 퓌타고라스 학파는 한편으로 수학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 학파의 성격을 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종교 집단이기도 했다. 퓌타고라스 학파는 과학과 종교가 기이하게 결합되어 있는 집단의 원형을 형성한다. 이 학파는 (아마도 정치적 박해 때문에) 크로톤에서 메타폰튀온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퓌타고라스 사후에도 이 학파는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오르페우스교에 따르면 영혼은 불사(不死)이며 본래 신들과 나란히 존재했으나 죄를 범해 지상으로 추방당한 존재로 이해되었다. 영혼이 물질과 전적으로 구분되는 실체이며, 천상과 지상을 이어주는 끈이라는 이 생각은 오래도록 서구 철학에서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혼은 윤회전생(輪廻轉生=palingenesia)을 겪는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이 이 영원한 벌로부터 벗어나 천상으로 돌아가려면 '정화(katharsis)'를 통해야 한다. 오르페우스교의 이런 교리는 서구 사상사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추종자가 퓌타고라스였다.

퓌타고라스 학파는 오르페우스교와 밀레토스 철학을 기묘하게 뒤섞어 놓았다. 예컨대 공기의 희박화와 농밀화를 통해 세계를 설명한 아낙시메네스의 사상을 영혼의 윤회전생과 다름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당시에는 '영혼'이라는 말에 공기의 뜻도 있었다) 퓌타고라스 학파는 또 우주는 신성이 계시된 것으로 봄으로써 범신론적 틀을 마련했다. 이로부터 중요한 결론이 이끌어져 나왔는데, 바로 우주의 이법을 탐구하는 것이 곧 신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다. 지식과 종교를 일치시킨 독특한 이 생각은 그 후 서구 사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생각에 기반해 퓌타고라스 학파는 서구 학문의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생각들 중 하나를 제시하게 된다. 바로 '코스모스(kosmos)'라는 생각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우주의 신성은 곧 우주의 질서이다.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곧 물질성을 벗어나 그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며, 때문에 우주의 수학적 질서에 대한 탐구 자체가 곧 영혼의 정화와 직결된다. 우주의 질서는 또한 '조화(harmonia)'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때문에 퓌타고라스 학파에게 음악은 결정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몸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술이 필요하게 되며(이 생각도 서구 의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퓌타고라스 학파는 당시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던 고정 음계(音階)가 기본음을 1로 해서 $\frac{1}{2}$ (옥타브), $\frac{2}{3}$ (5도), $\frac{3}{4}$ (4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무척 기뻐해서 "만물은 수"라는 형이상학적 가설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에 퓌타고라스 학파는 아낙시만드로스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즉 음계란 음의 아페이론에 페라스가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게 되며 이 때의 페라스란 다름 아닌 수라는 것이다. 퓌타고라스 학파는 만물이 수로 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수학적 탐구가 우주 질서의 탐구요 곧 영혼 정화라는 결론에 이른다. 퓌타고라스 학파의 이런 생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서구 사유에 심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지나쳐서 퓌타고라스 학파는 (훗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했듯이) 수와 사물을 혼동하게 된다. 나아가 수를 신비화함으로써 수비학(數秘學)의 미로에 빠지게 된다. 예컨대 퓌타고라스 학파는 '테트락튀스'(1 + 2 + 3 + 4 = 10)라는 도형수(圖形數)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으며, 이를 우주 자체와 동일시했다. 1은 점, 2는 최소의 선분, 3은 최초의 면(삼각형), 4는 최초의 입체(정사면체)와 동일시되었으며, 우주가 이들을 통해서 생성한 것으로 이해했다.

퓌타고라스 학파는 우주의 질서=조화를 수로서 파악하고자 했으며, 지적 탐구와 종교적 정화를 하나로 보았다는 점에서 서구 사유에 일정한 라이트모티브를 제공했다. 엘레아학파, 엠페도클레스, 플라톤 등이 이 학파의 뒤를 이었으며, 특히 모든 형태의 과학적 사유는 퓌타고라스 학파를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성격이나 방만한 박학주의(博學主義)는 크세노파네스나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www.artnstudy.com